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찌릿찌릿 전기교실’

“태양전지 자동차 만들며 전기 기술 원리 배우요”



액체 질소를 활용한 실험을 보는 학생들. 한국전기연구원 제공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하나 둘씩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로봇과 인공지능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전기와 관련된 진로 탐색 기회를 주고 싶다면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찌릿찌릿 전기교실’에 주목해보는 것은 어떨까?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국전기연구원은 전력사업, 전기공업 및 전기이용 분야의 연구개발과 시험을 통해 전기 산업의 발전을 이끈 기관으로,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전기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총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는 ‘찌릿찌릿 전기교실’은 학생들에게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시설과 설비 등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공 낙뢰 체험 △자기부상열차 기술에 적용되는 초전도 현상 시연 및 체험 △무선전력전송과 태양전지 등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과학교구 만들기 체험 등 전기 기술 관련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공 낙뢰 체험에서는 연구원이 실험 설비를 활용해 높은 전압으로 인공 번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전기의 원리와 연구원이 하는 일 등에 대해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다. -96°C 의 액체 질소를 활용해 자기부상열차가 운행되는 원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태양열로 굴러가는 미니 자동차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해보면서 전기 기술의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찌릿찌릿 전기교실은 월~금요일에 진행되며 참여 시간은 협의할 수 있다. 20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비는 무료다. 한국전기연구원 홈페이지(www.keri.re.kr)를 참고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5-280-1153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전기공학연구원: 전기공학연구원은 정비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 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하거나 제조 및 설비·설치를 감독하는 일을 한다. 전기공학이론의 원리를 엔지니어링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방법 및 절차를 계획, 실행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TIC TOC! 올림픽 컷!’

올림픽 스타 가상 인터뷰 해보자



올림픽 스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학생들. 서울올림픽기념관 제공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가까워지고 있다.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선정한 도시에서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경기 대회.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올림픽에서는 우정, 탁월, 존중 등의 올림픽 가치를 배울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대표 공익기관으로서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하고자 2013년부터 ‘올림픽’을 주제로 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올림픽기념관에서는 ‘TIC TOC! 올림픽 컷!’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TIC TOC! 올림픽 컷!’은 현직 스포츠 기사를 멘토로 올림픽의 가치와 역사를 살펴본 뒤 직접 뉴스를 제작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학생들은 ‘올림픽의 역사’ 영상을 시청하며 그동안 올림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한 뒤 전 세계 올림픽 스타 9명이 등장하는 ‘올림픽꿈과 올림픽 감동의 순간들’이라는 주제의 올림픽 명장면 영상을 감상한다. 영상에 대한 소감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정, 탁월, 존중의 올림픽 가치를 배운다.

학생들은 영상에 등장한 올림픽 스타 9명 중 1명을 조별로 선택해 해당 선수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본다. 현직 스포츠 기자가 스포츠 기사 작성법과 주의사항, 스포츠 기자가 하는 일 등에 대해 설명한 영상을 본 뒤 조별로 나누어 기사 작성 시간을 갖는다. 기사를 작성할 때는 과거 선수의 업적을 바탕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선수의 가상 인터뷰를 진행해 인터뷰 기사 형식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조별로 작성한 기사를 앞에서 발표하며 ‘베스트 헤드라인’에 투표하고, 올림픽기념관 상설전시관을 관람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TIC TOC! 올림픽 컷!’은 수, 목, 금요일에 운영된다. 한 회에 30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꿈길 사이트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관 대표전화(02-410-1354, 5)로 접수하면 된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스포츠 기자: 스포츠 기자는 각종 스포츠 소식을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일을 한다.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특정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기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